

김현미 장관 “BMW 화재원인 올해 안 조사 완료” 밝혀

8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찾아 임정 조사 당부·능장 리콜결함 은폐 없도록 제도 강화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.
 - 이번 방문에는 외부전문가,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하여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.
- 김현미 장관은 “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,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”며,
 - “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,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또한, “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며, 능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·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”고 전했다.
- 아울러 “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,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”고 말했다.

2018. 8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